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7. 2.(목)

정부는 국내 건전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합리적 가격의 차량 출시 유도 정책을 지속할 계획

2026년 7월 2일자 조선일보 <韓정부 보조금 시행 날, 테슬라 車값 기습 인상>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 테슬라가 하반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확정된 직후인 1일 전기차 ‘모델3’와 ‘모델Y’ 주요 세부모델 가격을 300~700만원 기습 인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제조사 가격 인상의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

□ 설명 내용

- 테슬라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 이전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평가를 통과했다하여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부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었음
 - ※ 보조금 전액지급 가격기준인 5,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던 차량 1종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액 반감(50%)
- 제조사의 가격인상은 지속적인 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에 따라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 테슬라는 올해 4월에도 4~500만원 가격 인상을 한 차례 단행한 바 있음

-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차량의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친환경성 등을 기반으로 산정한 지급액에 기본가격이 5,300만원 미만인 차량은 100%, 5,3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50%,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0%를 지급하도록 가격계수를 설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기준 구간을 현행 5,300만원, 8,500만원에서 '27년부터는 5,000만원, 8,000만원으로 강화를 예고*하는 등 제조사의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지속 중
-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정부는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해 국내 건전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기준을 지속 고도화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합리적인 성능·가격의 차량 출시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할 계획임

담당 부서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박판규 (044-201-6880)
		담당자	서기관	강 찬 (044-201-6882)